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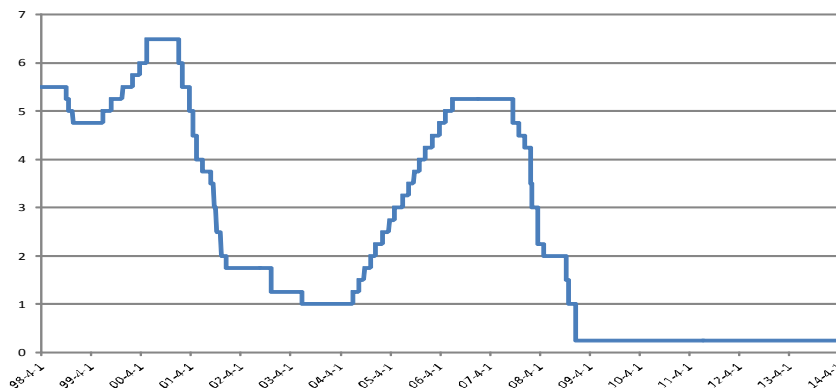
미국 생명보험산업: 저금리의 영향과 시사점

김진익 수석담당역

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ed, 이후 연준)는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였음.

- 장기국채와 기타 증권을 대량 구매하는 양적완화(QE: 2008년(QE1), 2010년(QE2), 2012년(QE3)) 프로그램 실시로 미국 금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.
 - 또한 정책금리를 0~0.25% 수준으로 유지하여 10년 물 국채금리는 2007년 초 4.68%에서 2008년 말 2.25%, 2011년 말 1.89%로 하락함.
 - 저금리가 지속되며 생명보험산업은 큰 영향을 받고 있음.

〈그림 1〉 미국 기준금리 추이



자료: Bloomberg.

■ 저금리 환경으로 인한 금리리스크로 미국 생명보험산업은 추가적인 준비금을 적립하였음.

- 보험회사는 특성상 자산과 부채가 금리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저금리 지속으로 상당한 금리리스크에 직면함.
 - 금리리스크는 생명보험회사의 수익, 자본과 준비금, 유동성과 경쟁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

미치며, 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상품유형에 따라 저금리 영향이 결정됨.

-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은 투자수익률과 보험상품 부리이율 간 금리차(spread)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부리이율 이상의 투자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움.

●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리스크를 헤지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산/부채 일치를 위해 자산의 듀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것이 생명보험회사 금리리스크전략의 핵심임.

- 또한 예정이율을 낮추는 등 조건을 변경한 보험상품 개발도 점진적으로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임.

● 전미 보험감독자협의회(NAIC)는 2012년 말까지 추가적인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생명보험회사들은 97억 달러의 추가적인 자산/부채 현금흐름 위험준비금을 적립한 바 있음.

- 20013년 및 2014년 저금리 환경이 생명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저금리로 인해 생명보험산업 준비금이 2006년 1.98조 달러에서 2012년 2.78조 달러로 증가했으나 생명보험회사들의 지급능력에는 충격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함.

■ 2014년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장기금리가 하락하며 생명보험산업의 금리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.

● 2014년 1월, 전미 보험감독자협의회는 보고서(Life Insurers to Benefit from Rising Interest Rates)를 발표하며 전문가들의 장기금리 상승전망을 근거로 향후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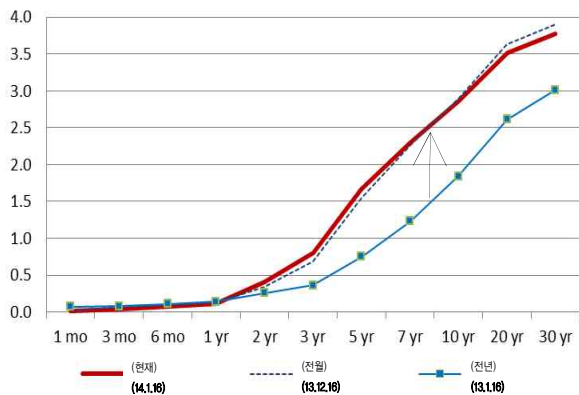
- 2013년 중 장기금리는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10년 물 국채금리가 2012년 말 1.76%에서 2013년 말 3.04%까지 상승함.

- 전미 보험감독자협의회는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를 지속하면 10년 물 국채금리가 3.25%~3.5%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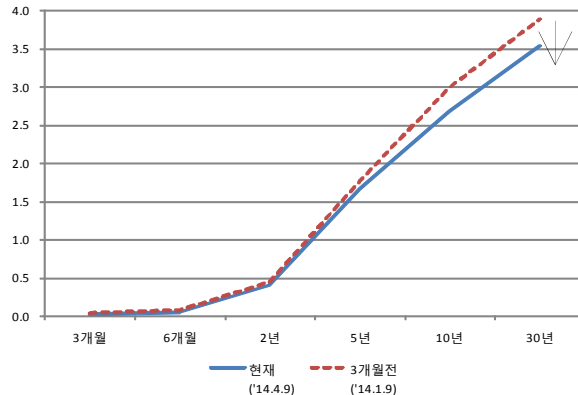
● 2013년 말 이후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13년 12월 말 3.03%였던 10년 물 국채금리가 4월 9일 2.69%로 하락하여 금리리스크가 지속됨.

- Moody's는 2013년 말, 금리상승전망에 따라 생명보험산업 전망을 안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저금리상황이 2014년 중 지속될 경우 적립금 추가부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음을 경고함.

〈그림 2〉 미국 장기금리 수익률 곡선(2014. 1. 16)



〈그림 3〉 미국 장기금리 수익률 곡선(2014. 4. 9)



자료: NAIC, 국제금융센터.

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금리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.

- 미국 생명보험산업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저금리 환경에서도 지급능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.
- 최근 IMF는 향후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, 금리리스크관리 및 보험상품개발 전략의 중요성이 커짐.

(NAIC, Moody's 등)